

배달 음식 되가져간 배달원



▲ 음식을 되가져가는 배달원. 사진=유튜브(Drive Man) 캡처

한 음식 배달원이 고객에게 추가 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음식을 전달하지 않고 되가져가는 황당한 모습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드라이브 맨'에는 지난해 8월 뉴욕주 스미스타운에 있는 한 주택 감시카메라에 여성 배달원과 집 주인이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이 배달원이 주택 초인종을 누른 뒤 집 안에서 음식을 문 앞에 놓고 가라는 말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대로는 갈 수 없다. 당신과 할 말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남성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자 여성은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아냐?"며 "당신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알았다면 당신이 준비한 것(팁)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주 보고 말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집주인이 "그렇게 멀면 왜 이 배달을 맡았냐?"고 묻자 여성은 "업체는 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 팁을 더 적당하게 달라."면서 "당신이 남긴 8달러 팁으로는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이 배달원이 소속돼 있는 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사전에 배달 거리나 시간 최저 팁 등을 제시한다. 이 때문인지 남성이 "대체 내게 뭘 원하는 거냐! 팁은 8달러 줬다!"고 말하자 여성은 "알았다. 난 이 음식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뒤 그대로 음식을 가지고 떠나버린다.

코로나로 후각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한 가족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은 가족이 집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잠을 자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16일 '6abc Philadelphia'에 따르면 전날 새벽 2시쯤, 텍사스주 와코 지역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가족 4명 중 3명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냄새를 맡지 못해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사이 불길은 견잡을 수 없이 번졌고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그때서야 비양카 리베라(17)가 눈을 떴다. 비양카는 가족 중 유일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비양카는 "자다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맡았고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많아 복도를 지나갈 수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다른 가족 3명은 모두 코로나19로 후각을 잃어 타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을 모두 깨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비양카는 결국 가족 모두를 깨워 뒷문으로 탈출했고 반려견 4마리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비양카는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건 나뿐이었다. 내가 죽거나 다칠 것은



▲ 전소된 집과 가족을 구한 비양카. 사진=유튜브(6abc Philadelphia) 캡처

중요치 않았다. 그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와코소방당국은 "대형 화재였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천운"이라면서 "소녀가 목숨을 바쳐 가족을 구했다."고 밝혔다.

겨우 옷만 걸치고 탈출한 가족들은 인근 숙박시설에서 적십자사 도움을 받고 있다.

도마 들고 해수욕장 들어간 페루 여자



▲ 도마를 옆구리에 끼고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여성. 사진=타운뉴스

무더위가 한창인 페루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바닷가 출입이 제한된 페루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마를 들고 백사장에 들어간 여성이 결국 강제 퇴출됐다

피서 시즌 개막과 함께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자 페루는 방역을 위해 이달 말까지 야간통행금지와 해수욕장 입장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바닷가에 사람이 몰

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다만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 서핑을 할 때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비원들은 서핑보드 지참 여부를 확인하고 해수욕장에 입장시킨다.

그런데 16일 페루 미라플로레스에서 한 여성이 하얀 플라스틱 도마를 옆구리에 끼고 경비원의 눈을 속여 해수욕장에 입장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사기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난다. 이 여성이 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백사장만 거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은 이 여성에게 다가가 확인한 결과, 그가 서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수욕장에서 쫓아냈다.

실제로 페루에서는 해수욕장에 들어가기 위해 서핑학교에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해수욕장에 들어가기 위해 갖은 꼼수가 동원되고 있지만 도마로 경비원의 눈을 속이고 입장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